

#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묵 · 새생각회 회장

## 발명이 따로 없다

발명이라면 누구나 왓트의 증기기관을 생각한다. 것처럼 유명한 증기기관의 어디가 특히 부분일까?

그 무렵 왓트는 가난한 수리공이었다. 그곳에 당시에 유명하던 N씨의 증기기관의 수리를 맡았다. 왓트는 증기기관 따위는 모르기에 책에서 대충 구조를 읽고 수리를 시작했다. 당시의 증기기관은, 원통의 속에 증기를 붙여넣어 피스톤을 위로 움직인 다음에 원통의 속에 물을 넣어 증기를 식혀서 피스톤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그러자니 한번 오르내리는데 한 번씩 물을 넣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귀찮고 불편했다. 이것을 본 왓트는,

“물을 안 넣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드디어, 원통 속의 증기를 관으로 별실에 넣어서 식히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특히 청구의 범위였다. 이것이 세계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한 대발명이 되었던 것이다. 가끔 왓트는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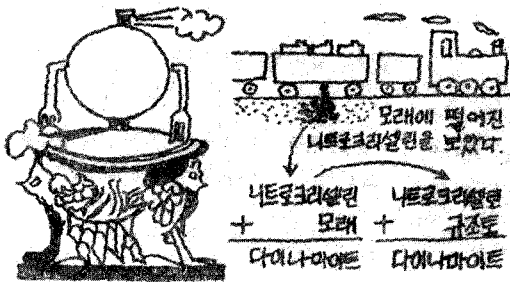
“제상에선 나를 대발명가라고 한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 N씨의 기관을 개량한 것 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실용신안이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의 다이나마이트의 발명은 그가 니트로글리셀린이란 액체의 폭발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러니까 학자였거나 기술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셀린은 기차가 덜커덩 흔들기만 해도 폭발하는 위험한 것으로 수송은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서 노벨은 생각했다.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날 니트로글리셀린이 든 통을 하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엔가 구멍이 뚫렸는지 속의 액이 뚝뚝 떨어져서 모래에 스며들고 있었다. 더 좀 자세히 보고 있으려니까 인절미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는, 이것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그만 덩



어리를 망치로 두들겼다.

안전하다. 그는 떨 듯이 기뻐다.

모래에 니트로글리셀린을 흡수시키면 폭발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것이 그의 대발명인 다이나마이트의 특허 중 심이다. 그 후에 연구를 거듭하여 드디어 규조토라는 흡수성이 강한 흙에 흡수시켜 그것을 팔아 세계의 돈을 긁어 모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발명가는 없다. 불편을 그대로 참지 않고 부족한 것을 더 좋게 고치려고 노력하면, 해결되고 해결을 하면 그것이 발명이 되는 것이다.

## 창조의 밑거름은 호기심

호기심이란 새로운 것, 처음 보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정신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일본에 처음으로 첩포가 소개된 것은 1543년이다. 그 다음 해에 이것을 본따서 국산 총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13년 후에는 일본 전역에 총이 80여만 자루가 있었고 2만자루는 외국에 수출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총을 본 것은 꽤 오래 된다. 그러나 첩포의 국산화는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근대화에 앞장설 수 있는 한 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그만큼 잔재주에 능하고 원숭이처럼 모방하는 습씨가 비상하여 그 왕성한 호기심과 모방력을 동양 3국에서 가장 뒤떨어졌던 일본을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굳이 미국의 리스만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계의 민족 중 일본만큼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없으며 또 그것은 경조부박과 상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창조활동에 있어서 호기심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유럽인은 분명히 호기심에서 일본에게 뒤진다. 그러나 그들은 일찌기 왕성한 호기심으로 대항해시대를 이루지 않았던가! 17세기 말엽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러 이태리인도 불란서인도 여행 열에 들떠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행에 나섰다.

그리하여 여행기와 여행안내서가 많이 출판되고, 그것이 또 자극이 되어 지적으로 고정된 세계에서 움직이고 흐르는 세계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

무엇이나 신기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의복의 유행처럼 헛 것은 버리고 새 것이라면 어지럽도록 받아들였던 것이다.

일찌기 근대 초엽에 유럽에서 터진 호기심이 근대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현재 시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뒤늦게 근대화하기 시작한 일본에서, 결국 영국의 3배의 빠르기를 공업화하고 영국 이상으로 공업화한 현재까지도 그대로 당초의 왕성한 호기심이 시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특 9612

